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혜감국사 '劍覺'

혜감 국사는 13세 되던 해 가을 장성 백양사에 갔다가 물외암(物外庵)의 선경(仙境)을 보고 세속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곧바로 진(眞) 대사에게 나아가 출가하였다.

출가하자마자 경율(經律)을 수학한 국사는 남쪽 지역을 유력하며 제방의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부휴 선사에게 대장경을 배운 국사는 당시 수백명의 제자들 가운데 운곡 충휘(雲谷沖徽), 송월 응상(松月應祥)과 함께 '법문삼걸(法門三傑)'로 꼽힐 정도로 법문에 능통했다. 국사의 공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휴정 선사가 묘향산에서 선풍을 크게 떨쳐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휴정 선사는 국사를 보자마자 불도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수행자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로 받아들였다. 휴정의 회상에서 수참한 지 3년 만에 당(堂)을 열고 법화(法化)를 폈다. 이 때 국사는 약관 20세였으며, 스승 휴정은 국사에게 다음과 같은 게송을 내렸다.

"그림자 없는 나무를 쪼개다, 물속의 물거품을 태우니, 어허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 소를 타고 소를 찾다니(斫來無影樹 燒盡水中漚 可笑騎牛者 騎牛更覓牛)."

국사는 이 게송을 화두로 경서에 밝은 제방의 종장(宗匠)들을 찾아다니며 20여 년간 여쭈었으나 그 뜻을 명확히 일러주는 이가 없었다. 결국 국사는 20여 년간의 두타행을 그만두고 스승 휴정이 있는 묘향산을 다시 찾아 용맹정진에 들었다. 영하 40℃의 추위가 계속되는 한겨울 어느 날, 국사는 눈바람에 나뭇가지가 뿌러지는 모습을 보고 무생무멸(無生無滅)의 진리를 확연히 깨달았다.

검각(劍覺 : 부처님의 칼)

飛星爆竹機鋒峻(비성폭죽기봉준)
烈石崩山座氣像高(열석붕의기상고)
對人殺活如王劍(대인살활여왕검)
凜凜威風滿五湖(늠름위풍만오호)

비성(飛星)과 폭죽(爆竹)의 날카로운 칼날 우뚝하고, 갈라지는 돌 무너지는 언덕의 기상 높도다.

사람을 죽이고 살림이 왕의 검과 같은데, 늠름한 위풍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국사의 깨달음은 무명(無明)의 적을 죽이고, 법신(法身)의 불(佛)을 살리는 살활기선(殺活機禪)의 선풍이다. 선관(禪觀)은 마조 · 황벽 · 임제 · 덕산 · 조동 등 여러 조사들의 가풍을 두루 수용하고 간화선과 묵조선을 겸비하여 선의 기용을 폭넓게 전수하였다. 국사가 특히 강조한 것은 살활기선(殺活機禪)이었는데, 활구(活句)를 묻는 제자에게 "동국삼산(東國三山)의 태능이 나이 아흔이 되도록 백가지 일에는 무능하구나. 그러나 종문(宗門)의 눈이 활짝 틔어서 한 손만으로도 죽고 살리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구나"고 하였다.

또한 국사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만 안주하지 않고 편양 언기 선사와 더불어 산속의 수행을 추구하는 수행자로 살아간 무위인(無位人 : 자기의 본래면목을 깨달아 경지에 이른 사람을 뜻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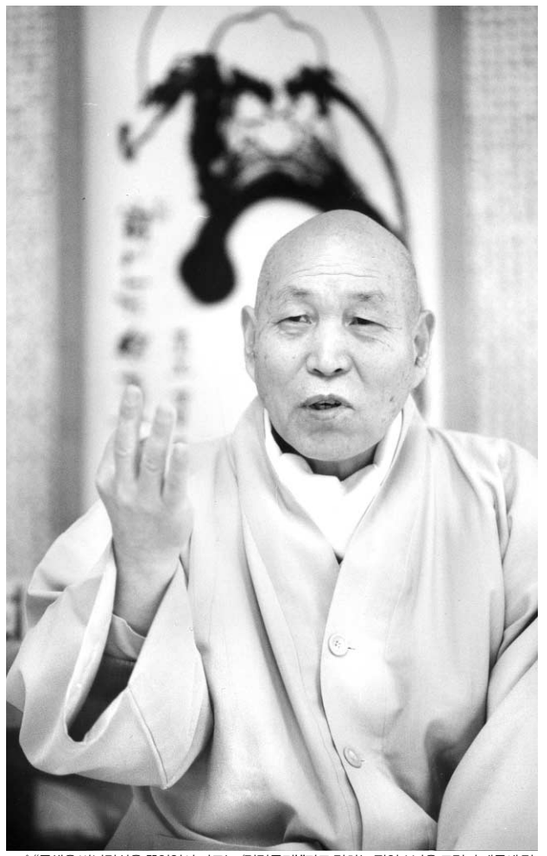
교(敎)를 묻는 제자들에게 국사는 "도(道)를 배워 세월 깊고 깊으매, 시공을 넘어 온 누리에 하나의 영심(靈心)뿐. 계절 바뀐다고 영심도 늙으랴, 공자와 부처도 두 마음 아니네. 물은 승니의 파란 눈이요, 산은 부처님의 푸른 머리로다. 달은 한 마음의 도장(印)이요, 구름은 만권의 경전이다"고 설했다.

이러한 국사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일문(一門)을 이루어 소요종파(逍遙宗派)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 명종 17년(1562) 담양에서 태어난 국사는 인조 27년(1649) 세수88세 법랍 73세로 입적했다. 임진왜란 때는 승군으로,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의 서쪽 성을 수축한 국사에게 효종은 조선조 처음으로 '혜감국사(慧鑑國師)'라는 시호를 내리고 비를 세웠다. 법명은 태능(太能), 법호는 소요(逍遙), 시호는 혜감국사, 속성은 오씨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달은 한마음의 도장(印)이요 구름은 만권의 경전이다"

"육바라밀 실천해야 불법 체득"



◇"중생은 번뇌망상을 끊임없이 기르는 '멍텅구리'"라고 말하는 정일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수백수천번 읽어 진리를 체득해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일러주신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정 일 스 님 (보광사 조실)

정일스님은? "지금도 선방에서 함께 참선수행하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때론 경책하기 위해서는 매를 드는데 망설이시지 않으시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수행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처럼, 정일스님은 70세의 나이에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선객이자, 자신의 성취를 제자들에게 훼저하게 전해주는 엄격한 스승이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6년에 조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어서 40여 년간 망월사, 범어사, 용화사, 통도사, 백련사, 만덕사 등의 선방을 돌며 참선수행했고, 해인사, 불국사, 용화사, 정각사 선원장과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망월사에서는 천일기도를 성만했으며, 이후에도 한시도 게으르지 않은 수행과 투철한 용맹심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선학원 이사장을 맡고있는 정일스님은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 주석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공부의 핵심을 짚어 주고 계시다.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덕분에 매일 수많은 대중들이 "스님의 법문은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 욕심'이 생긴다"며 1km 남짓한 오르막길을 걸어 보광사를 찾고 있다.

9살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슬픈 눈망울을 본 이후 다시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스님. 헌 책방에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구해 읽으며 염불에 열중했고, 그래서 불문에 귀의(출가)할 것을 결정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스님. 출가 후 금오, 춘성, 전강, 동산 스님 등 선지식들을 찾아 수행자의 도리를 배우고, 50년 수행생활 동안 부처님 말씀에 한 치 어긋남도 없이 살려고 노력해온 스님이 정일(正日)스님이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로 스님을 뵈러가는 날, 올긋볼긋 낙엽들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며 '무상(無常)'의 도리를 몸으로 전하고 있었다. 시자 현중스님의 안내로 보광사 1층 스님의 처소에 들어 삼배의 예를 올리자, "상(相)내는 일이라 극구 사양했는데 … 차나 한잔 합시다"라며 스님은 자애롭게 맞아주신다.

> 부처님 닮으려면
> 경전 수천번 읽고
> 꾸준히 수행
> ~

스님은 지난 79년부터 보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해 범어사, 망월사, 동화사, 용화사, 통도사, 백련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하던 스님이 북한산에 토굴을 짓고 수행하고 있는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 계기가 돼 서울에 머물게 됐다. 이 때 한 재가불자가 스님에게 현 보광사 터를 기증했는데, 그 터에 보광사가 건립되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오롯한 수행도량이 되어 오고 있다.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기초를 다져 화두를 드는 것도 부처님 법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에게 경전을 수백번 읽도록 하는 것은, 화두를 들어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

보광사의 '신도교육 프로그램'은 엄격하고 훨저하기로 유명하다. 보광사를 처음 찾은 불자는 우선 광명진언을 하루 1000번씩 21일간 외우고 천도재를 지낸다. 그리고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관세음보문품경> 50독을 마치면 천도재를 또 올린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의 번뇌를 한 꺼풀 벗었다는 뜻에서 지내는 천도재는 <선가귀감> 50독, <원각경> 300독, <법화경> 30독을 할 때마다 계속돼, 다시 한번 <선가귀감>을 50독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때 정일스님은 교육을 이수한 불자를 불러 공부를 자상하게 점검하는 한편 '이뭣꼬' 화두를 준다.

"우리의 머리 속에는 번뇌망상과 눈으로 익힌 알음알이만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경전을 한두번 읽어서는 그 오묘한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번뇌망상의 혀도로 잰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우쭐해 하지만 본래 모습을 보기에는 어림없지요. 경전을 알음알이로 해석하고 불법을 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합니다. 수백수천 번 경전을 읽게 하는 것은 인과(因果)를 알고 그 속에서 번뇌망상을 보고 본래 자성을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상좌들 숨소리까지 살펴

그래서 정일스님은 스님이나 불자에게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 외에도 육바라밀을 함께 실천해 불법을 체득하는 경지에까지 올라서야 한다고 항상 가르친다. 스님에게 있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라는 육바라밀 즉, 육화정신은 불법을 배우는 불제자들의 실천적 생활 윤리이다.

스님은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매일 관음정근 5만독을 시켰다. 스님은 상

좌들의 눈과 말, 숨소리 등을 납납이 살피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게을리 않았다. 그래서 스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좌들은 어김없이 종아리를 걷어 올려야만 했다. '공부의 엄격함'을 논하면 정일스님이 원로 스님들 중 단연 으뜸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평할 정도다.

그런데 정일스님 스스로가 워낙 엄격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스님의 수행생활은 그대로가 제자들이나 신도들의 귀감이 된다. 스님은 망월사 천중선원에서의 천일기도를 통해 '목숨을 내놓은 정진'을 했다. 천일동안 기도정진하며,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의 나쁜 기운을 없애는 뜻으로 새벽마다 '냉욕'을 거르지 않았다.

목숨 내놓은 천일정진

당시 망월사에서는 춘성스님이 주지로 전강스님이 선원장으로 주석하고 있었다. 정일스님이 망월사를 찾은 것도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천일기도를 하겠다는 스님에게 춘성스님은 "왜 천일기도를 하려느냐, 여우가 되려고 하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스님은 천일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기 위해 춘성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정일스님 앞에 큰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이라고 일갈했다. 정일스님이 당황해 가만히 서 있자 춘성스님은 30방을 때렸다. 정일스님은 춘성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때 춘성스님은 또 30방을 때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처음엔 춘성스님의 말과 행동에 담긴 뜻을 알지 못했지요. 다시 선방으로 돌아와서야 '말놀음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임이 느껴지더군요. 불법은 언어의 경계가 미치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출가 전에 청계천 헌책방에서 <선가귀감>을 구해 읽었는데, 천일기도를 마친후 다시 <선가귀감>을 읽었어요. 읽을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지더군요. 그 과정에서 머리 속에서 우글거리는 번뇌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명료해졌어요. 번뇌가 떨어져 나간만큼 몸과 마음의 도리가 바르고 착해져, 거기서 저절로 환희심이 생겨나요. 수행정진이란 한 두 번으로 결판이 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적어도 3년동안은 쉼없이 정진해야 득력할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일 스님.

> 마음공부 한다는 것은
> 머리 속 쓰레기 치우고
> 자기 스스로 복 짓는 일

정일스님은 수좌들 사이에서 '중단 없는 수행'으로 유명하다. 망월사 천중선원을 비롯해 스님이 수행처로 삼았던 용화사 법보선원, 통도사 영축총림 선원,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각각 3년을 기본으로 수행했고, 그 기간동안 입선 때는 참선수행을, 방선 때는 염불수행을 했을 정도로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수행자라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적어도 석삼년 동안은 한번의 쉼 없이 정진해야 하고, 그래야만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점검 과정에서 스승의 질타를 받더라도 다시 선방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정일스님은 간화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묵조선이나 위빠사나 등 대·소승의 모든 수행법을 포용한다. 스님은 "요새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각각의 강과 하천도 모두 대해로 모인다. 흘러가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단지 열심히 하면 된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본심을 본다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위빠사나도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집착해 머문다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과정을 지나 구경의 단계를 넘어야 할 때는 화두참구, 간화선을 해야 한다. 간화선은 망상의 구름을 걷고 본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마지막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방편에 떨어진 외도일 뿐이며, 번뇌망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어린이 포교에 열정

스님에 따르면 사람은 가죽 주머니에 달라붙은 귀신이다. 즉 번뇌망상이 사는 집과 같다. 중생들이 편을 가르고 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번뇌망상을 뒤집어쓰고 나름대로 나타난 그 경계 즉, 자기가 본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귀신의 버릇이라,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한 생태에서는 내내 귀신일 뿐이다. 그래서 스님은 중생을 '멍텅구리'라고 부른다.

"전도몽상된 이 모든 생각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개혁해야 해요. 개혁하는 방법이 바로 인과법과 육바라밀이죠. 그 과정에서 환희심을 알게 되면 수행력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요."

스님의 이러한 생각은 5년 전 부산에 보광사를 지으며 개원한 유치원의 교육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상을 3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일스님의 남다른 불교교육관이 있어 가능했다.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에게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자'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인과법이다. 유치원에는 제법 규모 있는 텃밭이 있는데, 이 곳에서 어린아이들은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며 변화의 원인까지도 찾아서 쓰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자연히 생명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상호 공동체로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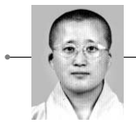
"그 어린 머리로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든다'는 생각을 할 정도라면 교육의 성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공부도 수행과 같이 하나 하나 관찰해서 이해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자연과 자신 혹은 식물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때 인연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순수함으로 불법을 쉽게 받아들인 아이들의 경우처럼, 스님은 많은 불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끄달림 없이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음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을 짓는 일'이다. 정일 스님은 오늘도 그 이치를 밝게 비추며, 불제자들이 그 맛을 알도록 열심히 이끌고 있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17일 보광사 대웅전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불자회 수계법회에서 법문하는 정일스님.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유곡스님

바다 건너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뉴스를 보며 기도하는 일 외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성인들이 다 나서서라도 저 전쟁의 불길을 끌 수는 없는 걸까? 수행자란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늘 자비를 베풀고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건만 왜 모든 이들이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

난 그동안 불교계에서 하는 온갖 사회운동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라면 조만간 또 다른 사상으로 무장한 투쟁과 혁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믿어서였다. 세속의 인연으론 친구이고 절집 인연은 도반인 유곡(遊谷) 스님은 나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는 비구니로서 드물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원으로 사회운동에 적극 매진했다. 사회를 바꾸고 절집을 바꾸는 온갖 운동 속에는 항상 스님이 있었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계율, 포교, 수행,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이 사회변혁의 혁명사상과

"부처님 진리로 개혁해야" 참여운동 적극적 활동

만나, 중생과 승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이 되어 있었다. 스님이 강한 신념으로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투쟁해 갈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어느날 유곡스님과 나는 차 한잔 하며 현실참여문제 등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현재의 불교가 민중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너무 권위적이야. 스님은 성직(聖職)이 아님에도 무슨 신성불가침의 존재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참선수행만을 하며 이 불타는 사바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비켜서서 두 눈과 귀를 막고 수행만을 강조하잖아. 중생들은 억압 속에 고통받으며, 젊은 청춘들이 날마다 스러지고 있는데 너무 현실사회를 외면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도, 수행자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현실참여라는 것이 꼭 깃발 들고 거리로 나서고 집회라는 것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운동권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본연의 수행자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의 고통 해결법도 불교식으로 해야한다고 봐. 스님들은 불교수행자로서 불교적인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해야하는데 내 보기엔 그냥 일반 사회운동하는 이들과 별 다른 바가 없어서 싫다. 괜히 운동한다고 들썩거리지 말았으면 싶어. 그동안 스님이 얼마나 투쟁적으로 변했는지 알아? 때때로 난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두려워. 그 부정적 사고가 스님을 망칠 것 같고 한편으로 저러다 데모진압대에 잡혀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나?" "스님은 이 뼈아픈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나? 저 고통 속에 헤매는 이들의 소리에도 두 다리 쭈욱 뻗고 잠이 와? 난 그렇게 못한다. 위정자들이 바뀌기 전에 스님들의 의식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갈거야. 내게 희망의 말을 하지 않을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라. 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좀!"

그날 이후로 그런 심각한 대화는 커녕 만나도 형식적인 눈인사 외엔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변함없이 사회참여로 현실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고, 나는 포교하는 것으로 내 수행을 삼았다. 우리는 서로가 갈 길이 다른 이들처럼 지냈지만 난 나름대로 스님이 속한 세상에 대해 공부했다. 내 도반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날이면 날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헤매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난 그렇게 슬슬 변하면서 바로 졸업을 했고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 덕분에 승가는 확연히 변했고 종단내의 각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있었다. 유곡 스님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스님들의 노고였다는 것을 잘 안다.

지난 해 겨울 우연히 만나 의기투합해 잘 있던 말사 소임을 서로 휙 벗어던지고 만행을 할 때였다. "원욱스님, 나 오랫동안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 세상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편안한 마음자리를 찾고 싶다. " 그 소릴 듣는 순간 난 가슴이 찌르르 해졌다. 그것은 혁명을 잃어버린 사회운동가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53선지식을 만나고 돌아온 선재동자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머지않아 깨달은 이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 수행자 유곡스님은 덧없는 이 시간을 넘고 세월을 넘어서 니르바나, 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름처럼 구름을 헤치고 나온 둥근 달이 유유자적하게 산하대지 계곡까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그래도 만나면 나는 '반전(反戰)운동'은 하라고 권하고 싶다.

■서울 반야사 주지